태초아래 처음 있는 일이라. 적어도 둘에게 있어서는 그러하다.

하얀 빛을 가벼이 두른 차림으로 호리호리한 남성의 형상을 한 신비로운 존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상상만 했을 뿐, 기대한 적이 없어 조금 당혹스럽군요.』

기쁨과 기대가 함께하나 아래에 긴장이 깔린 잔잔한 소리였다. 그의 등 뒤로 공간에 통로를 연결하던 빛기둥이 소리도 없이 사그라들었다. 동시에 빛만이 가득하던 얼굴에 눈, 코, 입이 뚜렷해졌고 피부는 인간의 색채가 만들어졌다. 그를 이루던 빛이 밀집하고 엮여나가 그를 상징하는 백색 의복을 이루었고 광채에 가려져있던 빛보다 밝은 금발이 사락거리며 차분히 내려앉았다. 생기 있는 입술, 오뚝 솟은 코, 무(無)에서 차오르는 눈동자가 봄의 색을 갖추었을 때, 그는 머리를 쓸어올렸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찰나로 사라진 빛기둥이 있었던 자리를 돌아봤다. 그러려고 했었다. 그가 들어온 공간은 밑이 없고 하늘이 없는 끝도 없이 펼쳐진 아득함의 공간이기에 시선을 어느 곳에 둔다라는 행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자의 공간에 들어선 그는 자신의 예상과 달리 소멸되지 않았고 오히려 질서 위에 존재를 허락받았다. 모든 사건과 장소가 새로운 가운데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질서에 존재하게 된 이상 같은 행운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한 자신의 공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그는 방황하는 시선을 돌려 자신보다 다채로운 빛을 가진 여인에게로 돌아보며 말했다.

『아무래도 저는 이곳에 갇힌 듯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기쁨과 기대가 등등하나 긴장이 깔려있었다. 다만 조금 전 보다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소리였다.

여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그녀는 그녀의 세상에 일어난 변화를 경계하며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새삼스럽지만 우리는 만나선 안 될 터인데 어찌된 일이까요.』

아득히 먼 세월을 지나 이루어진 재회였었지만 반가운 마음보다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그런 것은 표정으로 그대로 드러났다. 서로를 앞에 두고 내보일 예의가 아니었으나, 둘 모두 감정을 숨기는 일에 익숙치 않고 주위를 둘러보느라 여유가 없는 건 피차 마찬가지라 개의치 않았다.

『』